



# 동계 태국 문화체험 보고서

(3박 5일의 문화교류)



학과	심리학과
학번	201322004
이름	이종원

# 목차

## I 서론

- 여행 동기
- 여행 루트 및 일정표

## II 탐방개요

- 탐방 동기 및 주제
- 대학 탐방 보고서
  - 타마잇 대학교

## III 여행기

- 왓포사원
- 수상가옥
- 아시아티크
- 고대사원
- 카오산 로드
- 매끌렁 시장
- 씨암 파라곤
- 태국의 밤

## IV 소감문

# | 서론

## -여행 동기



국제학부에 복수전공 시작 하자마자 나에게 문화탐방이라는 기회가 찾아왔다. 아마 김용기 교수님의 동남아시아 입문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나쳤을 기회였다. 우선 수업을 들으면서 내 시야는 한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넓혀나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생긴 의구심은 수업 때 배운 내용을 내 눈으로 그 나라에 가 직접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단순히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라는 편견을 동남아시아 입문 수업을 듣게 됨으로써 버릴 수 있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일본이 대거 진출하고 있는 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나라, 과거의 우리나라처럼 군부가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 등, 열대과일이 맛있는

나라 등 수업 때 배운 지식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태국 문화체험을 신청하게 되었고,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보자는 목표로 여행에 임했다.

## -여행 루트 및 일정표

5일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 여행 스케줄은 빡빡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태국 현지사정으로 못 가본 여행지도 있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었고, 더 많은 태국 현지인들을 만나고, 얘기해 볼 수 있었다. 공식 여행 일정표는 다음과 같았다.

### -1일차

태국 인프라 사찰 (태국의 상징 왕궁, 에메랄드 사원, 새벽사원, 수상가옥)

### -2일차

타마싯 대학교 방문, 카오산로드, 왕 치나쑹크림(방콕 불교사원),食문화체험(로얄드래곤)

### -3일차

아유타야 역사도시, 여름병궁, 고대사원군 관람(왓 마히탓), 선셋보트 탑승

### -4일차

아시안 티크, 씨암 , 食문화체험(MK수끼)

### -5일차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 후 해산

## II 탐방개요



### · 대학교 탐방 동기 및 주제

여행을 가기 전 나는 생각했다. 태국의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또 만약 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나눌까에 대해 깊게 생각해봤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 하지만 다른 국적, 과연 이 차이가 컸을까? 또 만약 차이가 존재한다 하면 어떤 식으로 차이를 줄여 나갈까를 항상 생각해본 것 같다. 타마싯 대학의 강당에 들어 간 뒤, 그 곳의 교수님으로부터 우리는 2가지의 주제를 받았다.

첫 번째, 한국과 태국의 비슷한 점, 차이점

두 번째, 한국과 태국의 정치 경제발전

먼저 첫 번째 주제로부터 우리 조는 태국의 학생들과 얘기를 해본 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태국과 한국의 대학생은 어떨까에 대한 얘기를 해본 결과, 생각하는 것은 우리와 크게 유사했다. 자신들의 진로를 크게 걱정하고 있었으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태국의 대학 역시 한국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수강을 할 수 있었으며, 수강시간표에 따른 학교를 다닌다고 했다. 또한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 교복을 입어야 하며, 타마싯 대학을 제외한 대학은 역시 대학생 때도 교복을 입는다고 한다.

· 차이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태국의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한다. 특히 놀란 점은 겨울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저번 올림픽 장소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 동계 올림픽 장소는 잘 모르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동계 올림픽이 연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심리학과를 전공하면서 배운 것처럼 날씨가 그 나라의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다시 한 번 알 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과 태국의 정치 경제발전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 내가 그 곳에서 느낀 사실은 태국이라는 나라가 흡사 한국의 30년 전 군부독재 시절과 매우 유사했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에 감탄을 했다고 한다. 만약 태국에서 저 정도의 시위가 일어난다면, 군부의 탄압이 매우 폭력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다. 그리고 국왕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으며, 부미폰 국왕이 죽은 뒤 시간이 지났음에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직까지 국왕에 대한 추모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후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태국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말 하고 있는데, 이는 수업 때 배운 지식과 일치하여 기분이 좋았다. 실제 태국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일본 시장이 점령을 하고 있으며, 태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태국에 진출한 동아시아 국가의 순서는 일본, 중국, 한국의 순이라고 한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 실제 k-pop이 많이 진출해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엄청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미국은 어떤지에 대한 내 질문에 작년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는 미국과 태국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었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이후 태국과의 관계는 급속히 안 좋아졌다고 한다. 이렇듯 태국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 대학 탐방 보고서

### -타마싯 대학교

토론이 끝난 뒤에 우리는 대학교 탐방을 시작했다. 대학교를 걷기도 했고, 또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기도 했다. 특히 대학교 탐방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 첫 날 태국에 왔을 때 우리의 여행가이드는 이런 말을 했다. “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태국 식 인사를 해봐라! 99%는 그 짐을 바닥에 두고 인사를 받아준다. 왜냐하면 인사를 안 받아주면 자신의 복이 타인에게 날라 갈 것이라는 미신 때문이다.” 라며 호언장담을 했다.

과연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은 쓰지 않고 있었다. 그냥 태국사람들에게 인사하면 인사를 잘 받아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 후 학교 내에 은행에 갈 일이 있어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은행이 어디 있다고 물어봤고, 감사하다고 와이(Wai)인사를 했지만, 그 학생들은 이내 내 행동을 보고 웃었다. 왜 그런지 물어본 결과 낯선 사람, 안면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전하는 인사를 보고 당황했다고 한다. 가이드의 말이 꼭 들어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다.

그 후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특이점을 발견했다. 학교 내에서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만 해도 수업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캠퍼스 내에 뛰어가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곳의 학교에서는 뛰어가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를 못했다. 추후의 가이드에게 물어봤는데, 1년 내내 기후가 같은 탓에, 매 순간에 급할 필요가 없다고 답을 해줬다. 또한 차가 많이 막혀 약속 시간에 늦어도 별 다른 감흥이 없다고 했다. 그런 탓에 태국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데, 한국과는 다른 사실이 몹시 흥미롭게 다가왔다.

### III 여행기

공식 일정에 나와 있는 순서와 다르게 태국 현지 사정 상, 가고자 하는 관광지를 안 간 곳도 있고, 왕궁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기도 했다. 이렇듯 공식 일정표와 다르게 관광지를 돌아다녔는데, 이 점은 조금 아쉽게 다가왔다

#### -왓포사원



왓포 사원은 태국에 도착해서 처음 방문한 곳이다. 태국의 사원이 화려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形形色색의 건축물이 내 눈에 딱 들어왔다. 한국의 소박하고 담백한 불교사원과는 다르게 이곳의 불교사원들은 전체적으로 화려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신기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을 둘러보던 중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태국 사원 안에 중국의 동상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분명 태국인데, 왜 중국인들의 동상이 있었을까? 그건 바로 과거 중국인들이 태국에 올 때 사원에 있던 동상들이 배의 무게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덕분에 안정적으로 중국에서 태국까지 건너온 뒤 동상들이 이 사원에 둔 것이 기원이라고 한다. 그 후 태국 내에 화교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원을 쪽 보다가 이곳에서 가장 놀란 것은 바로 와불상이다. “불상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 하는 생각을 무시하듯이, 압도적인 크기로 내 눈에 들어왔다. 길이 46m 높이 15m의 어마어마한 크기는 내 생각을 무시하듯이 한 눈에 담기도 힘들었다.

와불상은 석고 기단 위에 황금색으로 칠해졌으며, 열반에 든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한다. 다만 와불상이 너무 커서 전체의 모습을 한 번에 보기 힘들었다. 그나마 발바닥은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자세한 윤곽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발바닥에는 진주조개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냈는데, 이는 108번뇌를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동상 뒤에 둥근 그릇에 동전을 넣으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손쉽게 볼 수 있었고 이들의 모습은 매우 이색적 이었다.



### -수상가옥



방콕의 다리를 건너며 엄청난 크기의 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이곳에는 짜오프라야 강이 있었다. 왓포 사원에서 얼마 멀지 않은 선착장으로 이동 후 우리는 모터보트를 타고 강을 지났다.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저 멀리 보이는 현대식 건물과 더불어 강을 따라 존재하는 여러 사원, 특히 강 너머 보이는 아름답고 웅장한 새벽사원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대조적으로 배를 이용해 강을 지나다니며 수상가옥을 볼 수 있었는데, 건물이 꽤나 낮아보였다. 한 쪽에는 낮은 건물이, 반대편에는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강을 경계로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태국의 급격한 경제발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흡사 과거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만약 홍수가 나가거나 폭우가 내리면 이곳에 사는 거주민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주위를 살펴보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이 있다. 바로 시원한 강바람은 우리를 맞이해준 것이다. 더위에 지친 우리들에게 강에서 부는 바람은 우리의 더위를 식혀주었는데, 솔직히 처음에 주위를 둘러보며 많은 곳을 담으려고 했으나, 뒤로 갈수록 강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 -아시아티크



여행 2일차, 타마싯 대학을 방문한 뒤 그날 저녁 우리는 아시아티크로 이동했다. 이곳은 방콕 짜오프라야 강변에 위치한 현대식 야시장이라고 한다. 대형 쇼핑몰, 오락시설, 놀이기구 음식점, 여러 공연과 맛 집이 있는 곳인데 아쉽게 시간 관계상 이 곳에서 펼쳐지는 무에타이, 트랜스 젠더 등의 공연은 접할 수 없었다. 흘러나오는 음악은 이곳 야경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곳곳에 보이는 길거리

공연, 여행자들을 통해 이곳의 분위기가 얼마나 젊은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주변을 돌아다니며 느낀 사실은 아시아 티크의 분위기 자체가 태국이 아닌, 유럽의 향구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태국 속에서 유럽을 만나, 매우 이색적이었다.

-고대사원 (왓 마하탓)



가보지 못한 앙코르와트를 간다면 이런 느낌일까? 정말 한 눈에 봐도 고대 사원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고대에 만들었다고 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하학적이며, 균형 잡힌 건축물들을 다수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 미얀마와 태국의 전쟁으로 인해, 유적지가 많이 훼손된 상태라는 것을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 유적지 곳곳에 목이 잘린 불상들, 유적지의 탑 부분이 많이 부서져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저 보리수나무에 있는 불두는 과거 미얀마가 아유타야를 침략했을 당시, 무거워서 들고 가지 못해, 보리수나무 밑에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 나무뿌리가 불두를 감싸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우연의 탓일까, 아니면 태국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부처의 힘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화려하고 웅장한 넓은 사원 속에, 역설적이게도 머리가 없는 불상, 신체의 일부가 없는 불상, 그리고 곳곳에 부서져 있는 건축물은 괴상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참담했던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게 전해졌다.

하지만 같은 불교를 믿는 미얀마 국가가 태국과의 전쟁 속에 이런 참담한 짓은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는 않는다.



이 사원을 통해 나는 과거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시절을 떠올렸다. 침략을 통해 그 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박탈당하고, 그 나라의 역사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처럼, 태국 역시 이를 경험했다. 만약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가지지 않았더라면, 더 나은 문화유산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배워왔다. 마찬가지로 미얀마와 태국이 싸우지 않았더라면, 왓 마하탓 사원의 유적지들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 -여름별궁



여기는 태국일까? 그리스일까? 중국일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가이드의 말로는 방파인 별궁이 이태리, 그리스, 고대 중국 건물 양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곳곳에 보이는 군인들은 이곳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보였다. 걸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군인이 보이는 모습을 통해 태국의 군부가 다시 한 번 곳곳에 걸쳐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신기하게 우비를 사자마자 비가 그쳐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또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면 화려한 건물 속에서, 날씨가 우중충해 건물의 색감을 완전히 사진에 담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곳에서는 문화체험을 통해 처음만나는 사람과 재미있는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어 좋았다.

## -카오산 로드



이곳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여행자들의 거리이다. 일명 전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베이스캠프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이 곳은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로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 역시 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태국에 간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을 이번 기회에 갈 수 있어서 좋았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맥주를 마시며 그들과 교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과연 소문처럼 신나는 음악은 우리를 사로잡았으며, 길거리 음식의 맛있는 냄새, 화려한 의류와 가방,

액세서리 등은 다시 한 번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다. 특히 길거리 음식, 팟타야와 맥주를 먹는 도중 인도에서 온 여행객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으며, 한국말을 매우 능숙히 하였다. 아마 한국 사람이라 해도 믿을 정도의 어휘를 구사할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친구였다. 그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얻었던 여행 정보, 인도와 한국에 대한 문화이해는 다시 한 번 이곳이 진정 여행자들의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 친구와 팔로우를 맺었고, 기회가 되어 인도에 오게 된다면 자신을 찾아달라는 말과 함께 짧은 만남은 끝이 났다.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 이곳저곳 많이 다니느라 피곤했는데 오히려 이곳에 도착해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렸다. 다만 외국인들과 소통하는데, 영어의 한계점을 느꼈다. 그들과 더 소통하기 위해, 한국을 조금 더 알리고 싶고자, 영어 공부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셋 째 날은 카오산 로드를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 -매끌렁 시장



한국에 가기 전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이날은 오전부터 짝센 스के줄이 이루어져있었다. 과연 오늘은 어디를 갈까 하며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는데, 기차길에 형성된 시장을 간다는 말을 들었다. 기차길에 시장이 형성되었다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끌렁 시장에 도착하니 흡사 시골 장날에 온 거 같은 냄새가 우리를 맞이해 줬다. 여기 저기 보이는 생선가게, 과일가게, 옷 가게는 어릴 때 명절 때 할머니가 계시는

동네 시장 같아, 정겹다는 느낌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어릴 적 살던 곳, 바로 옆에 기차길이 있어, 위험하지만 기차길에서 친구들과 많이 놀았던 기억이 스쳐지나갔다. 기차길에 있는 돌맹이 던지고 놀기, 기차 철도 위를 걸으며 균형 잡으며 걸어가기, 과거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내가 어릴 적 살던 곳은 사람이 없는 곳이었다는 점이지만, 이곳은 정말 50cm 차이도 안 날 정도로 기차 철로 옆에 사람과 시장이 즐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해서 이 시장이 형성되었는지가 궁금하다. 전체적으로 나에게 매끌렁시장은 이국적인 모습이기보다는, 어릴 적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었던 곳이었다. 다만 시간관계 상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웠다.



다음으로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수상시장으로 이동했다. 기다란 수로 같은 곳에 보트를 타고 우리는 이동을 했다. 넓은 강을 지나는 보트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수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여태 타왔던 태국 보트 중에 제일 재미있었다. 이 수상시장은 정말 이국적이었다. 물 위에서 배를 탄 상인에게 물건을 팔고, 역시 배를 탄 손님이 물건을 산다. 위의 사진처럼 수상시장에는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태국 전통 기념품을 팔기도 하고, 곳곳에는 배 위에서 먹는 길거리 음식과 과일, 엽서, 꽃, 기념품도 판다. 정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이다.

또한 그 좁은 공간 속에서 많은 배가 오가는데 배끼리의 작은 충돌 하나 없었다. 북적거리는 수로 속에서 상인들의 능숙한 배 운전 솜씨를 감탄하면서 구경을 한 것 같다. 과연 불교의 나라, 물의 나라인 것처럼 이들에게 물이란 삶의 필수라는 것을 새삼느낄 수 있었다.

너무 이색적인 모습에 넋을 놓고 바라봤지만, 이내 나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우리의 보트가 이곳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의 보트를 두고 상인들이 호객행위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지만, 이내 상인들의 과도한 호객행위로 나는 긴장을 하며 누가 훑쳐가지 않게 내 귀중품들을 손에 꼭 쥐고 다닌 기억이 난다.

호객행위로 인해 피해는 입지 않아 다행임과 동시에 오히려 웃기게 이런 호객 행위 덕에 수상시장에서 파는 맛있는 길거리 음식 (닭 꼬치, 두리안 등)을 먹을 수 있었다. 아마 태국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을 곳은 내게 어릴 적 향수를 불러 일으켰던 매끌렁 시장과 물의 나라답게 배를 타 쇼핑을 할 수 있었던 이곳 수상시장이었다.

### -씨암 파라곤



마지막으로 향했던 여행지는 바로 이곳 씨암 파라곤이다. 3박5일의 여행도 벌써 끝이 보여 아쉬웠다. 더구나 이곳 씨암에는 비행기 시간 관계 상 1시간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실이 너무 아쉬웠다. 내가 이곳에 가 느낀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말 큰 규모의 복합 쇼핑 장소라는 것이었다. 지상 1층에는 다양한 나라의 푸드코드가 존재하고 있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고급상품들

이 많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한 예로 씨암 파라곤에 내려 주차장을 살펴봤는데, 고급 외제 스포츠카가 엄청 많았다. 내가 생각한 태국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짧은 시간동안 솔직히 이곳에서 많이 살펴보지 못했다. 다만 태국에도 소비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 된 공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식 일정 중에서 짧은 시간 탓인지 가장 많은 아쉬움이 남는 장소는 바로 이곳 씨암 파라곤이었다. 씨암 광장도 가보지 못했고, 백화점을 조금 둘러봤을 뿐인데 벌써 집결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1층 푸드 코트에 시간이 조금 있어 둘러볼 수 있었는데, 태국 학생들이 한국의 떡볶이와 튀김을 먹는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의 한식이 제법 많이 퍼졌구나 하며 속으로 뿌듯했다.



## -태국의 밤



태국의 밤은 어떨까? 혹시 한국과는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을 여행 내내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었다.

1. 먼저 태국의 존재하는 많은 편의점이다. 한국에서와 같이 다양한 식품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먹거리가 존재하는 모습은 한국과 유사하였다. 다른 점이라면 밤 12시가 되면 술과 담배를 사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탓에, 값싼 편의점 술을 눈앞에서 놓치고, 술집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맥주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이런 점만 제외를 한다면 태국의 편의점 음식은 맛있었고, 특히나 편의점에서 파는 라면은 내 입맛을 사로잡아서,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는 계기가 되었다.

2. 태국의 술집이다. 태국의 술집은 한국과 매우 유사했다. 다만 관광도시인 탓일까? 종업원이 와 건배를 외치고 흥을 돋는다는 것을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였다. 또한 종업원이 과도하게 말을 붙이는데, 이는 팁을 달라는 뜻이라고 한다. 또한 내가 방문했던 술집은 대개 새벽3시까지인데, 공통적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 경찰이 와 관광객을 단속할 수 있으니, 그전에 보내는 분위기였다. 그래도 한국과는 다른 나라 술집에, 다양한 외국인들과 뒤섞여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있을까?

3. 밤의 길거리이다. 새벽에 잠이 안와 나 혼자 거리를 거닐며 다녔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건 한국과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한국인들보다 더 잘 노는 여러 외국인들을 볼 수 있었고, 진정한 밤의 나라는 아마 태국이 아닐까 혼자 골똘히 생각을 했었다. 또한 새벽 늦게까지 저런 노점상들이 매우 많이 있었다. 밤의 길거리 역시 방콕도시의 빛을 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여행객들이 모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흘렀고, 너무 편안해보였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니 왠스레 내 입가도 미소를 띠었다.

## IV 소감문

3박 5일간의 짧지만 긴 여정이 마무리 되었다. 한국에 돌아와 보니 이번 문화탐방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으며, 새로운 목표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 수업 때 배운 지식을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국제통상학 이전에 심리학을 배울 때는 내가 배운 지식들이 과연 실생활에 쓸모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항상 품어왔던 것 같다. 하지만 국제통상학을 복수전공하면서 내가 배운 지식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 나라에 작용하고 있으며, 영향을 끼치는 지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문화탐방이 되었다.

이런 문화탐방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 나는 태국에 가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뤘다. 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고, 그들의 문화, 건축, 가치관을 알아간 것은 내게 있어서 분명 소중한 양식이 되어 머릿속에 남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태국이라는 나라에게 있어서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된 것도 인식이 깊다. 가서 태국인 친구도 사기고, 여럿 외국인 친구도 사귄 수 있었다. 태국에 도착하여 그들의 생각이 뭔지, 또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짧게나마 얘기를 나눔으로써 그들과 나의 가치관을 조금이나마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다.

한국은 좋다. 그렇기에 해외를 많이 나가보라는 교수님들의 말씀이 와 닿기 시작한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더욱 더 많은 나라를 방문하며 견문을 조금씩 넓혀나가고자 한다. 20살이 된 이후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졌고, 그들의 사고 역시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나는 이번 문화탐방을 통해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 이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여러 외국인 친구를 만나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생각을 알아가 보자고 한다. 또한 아직까지 부족한 영어실력이기에, 열심히 공부하여 그들과 의사소통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듯 내게 이번 문화체험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다시 한 번 정립해주었고, 나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이는 고등학생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나가는 신념이며 내 인생의 방향이다. 이번 문화탐방을 통해 내가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해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나는 내 미래를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내게 일깨운 좋은 기회가 되었다.